



미 증시, 고용지표 부진,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30 일(수) 미국 증시는 미국 2 분기 경제성장률, ADP 고용지표 부진이 호재로 작용, 시장 금리 4.1%대 하향 안정, 연준 긴축 우려 완화,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등에 힘입어 강세 (다우 +0.11%, S&P500 +0.38%, 나스닥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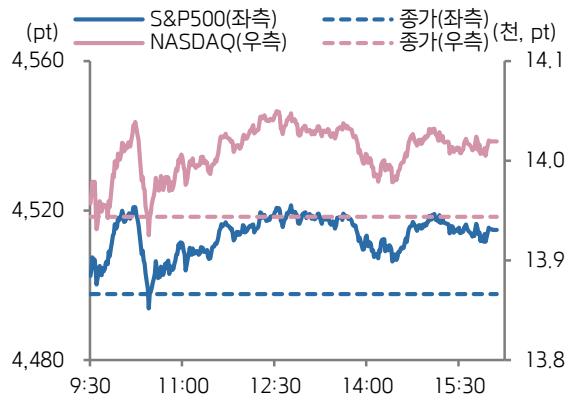
미국 2 분기 GDP 성장률은 QQQ 2.1%(예상 2.4%, 1 분기 2.0%, 속보치 2.4%) 기록하며 속보치 대비 하향. 이는 재고와 비주거용 고정 투자 감소에 기인하며 반면, 가계 지출은 1.7% 상향 조정.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3.7% 상승,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8 월 ADP 민간고용은 17.7 만건(예상 20.0 만명, 7 월 37.1 만건)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하향 조정된 전월대비로도 부진. 또한 이직자 포함한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둔화. 집계측은 “8 월 일자리 수치는 팬데믹 이전 일자리 창출 수준과 비슷하다”, “2 년간의 이례적인 증가 이후 급여와 고용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 미국 7 월 잠정주택 판매는 MOM 0.9%(예상 -0.6%, 전월 0.4%)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 집계측은 “계약 체결의 증가는 향후 판매 계약의 추가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기존주택 판매 시장이 예상보다 강력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 동시에 여전히 극심한 재고부족과 높은 금리와 가격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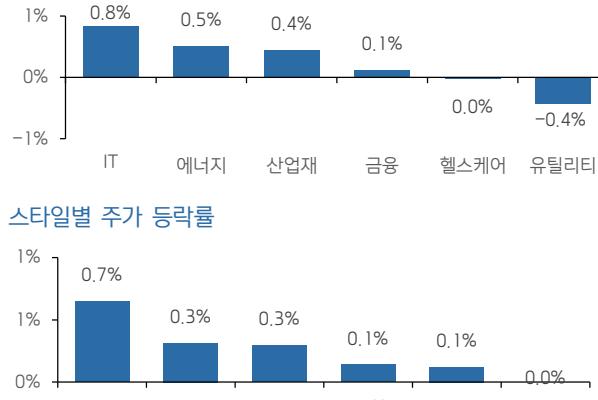
중국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장관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을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 양국간 무역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중국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중국 측이 수출통제 철회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밝힘. 중국이 올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내 불투명한 규제가 늘면서 미국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업종별로 IT(+0.8%), 에너지(+0.5%), 산업재(+0.4%) 강세, 유트리티(-0.4%), 헬스케어(0%), 금융(+0.1%) 약세. 엔비디아(0.98%) 2분기 실적 이후 투자의견이 상향된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 경신. 애플(1.92%) 9월 12일 아이폰 15 공개를 앞두고, 씨티그룹이 아이폰 15 의 하드웨어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코멘트한 영향으로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1.22	+0.35%	USD/KRW	1,323.38	+0.11%
코스피 200	334.94	+0.35%	달러 지수	103.16	-0.36%
코스닥	923.81	+0.83%	EUR/USD	1.09	+0.05%
코스닥 150	1,479.47	+0.55%	USD/CNH	7.30	-0.04%
S&P500	4,514.87	+0.38%	USD/JPY	146.14	-0.07%
NASDAQ	14,019.31	+0.54%	채권시장		
다우	34,890.24	+0.11%	국고채 3년	3.740	+0bp
VIX	13.88	-3.94%	국고채 10년	3.857	+1.2bp
러셀 2000	1,903.21	+0.4%	미국 국채 2년	4.886	-0.8bp
필라. 반도체	3,643.92	+0.4%	미국 국채 10년	4.114	-0.6bp
다우 운송	15,928.03	+0.47%	미국 국채 30년	4.226	-0.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5.31	-0.26%	WTI	81.65	+0.02%
MSCI 전세계 지수	687.86	+0.49%	브렌트유	85.86	+0.43%
MSCI DM 지수	2,991.52	+0.54%	금	1971.2	-0.09%
MSCI EM 지수	988.30	+0.07%	은	24.73	-0.22%
MSCI 한국 ETF	62.94	-0.65%	구리	378.8	+0.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2.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경제지표가 국내 중국 소비테마주에 미치는 영향
3. MSCI 리밸런싱을 앞둔 외국인이 장중 및 장마감 전 동시호가에서의 매매 패턴 급변 가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 월 ADP 민간 고용(17.7 만건, 컨센 19.5 만건)은 예상보다 둔화된 가운데, 임금 증가율도 5.9%(YoY)로 '21년 10 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바라고 있는) 고용 둔화 신호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연준 역시 추가 긴축을 부담스러워 하는 있는 시점에서 타이밍 상 적절한 데이터가 발표된 상황(Bad news is good news).

물론 비농업부문고용(노동통계국 발표)보다 이를 먼저 발표되는 ADP(민간업체 발표) 민간고용이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존재. 과거 수차례 ADP 고용이 비농업부문 고용에 비해 과소 혹은 과잉 집계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ex: 5 월 ADP 27.8 만 vs 비농업 33.9 만, 6 월 ADP 49.7 만 vs 6 월 비농업 18.5 만, 7 월 ADP 32.4 만 vs 7 월 비농업 18.7 만).

하지만 전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반응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ADP 예측력은 자처하더라도 JOLTs 보고서 신규 일자리 급감, 채용률 및 퇴직률 감소 등 타이트한 고용시장 여건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간 중간 이러한 분위기가 바뀔 여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초과저축 여력 감소 및 잠재적인 고금리 부작용 등을 변수로 반영해야 함. 따라서, 당사가 제시한 대로 “노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및 7 월 금리인상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즉 9 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 지속”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고용 둔화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에도, 거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PCE 물가 및 고용 지표 경계심리가 외국인 매수세를 제약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된 채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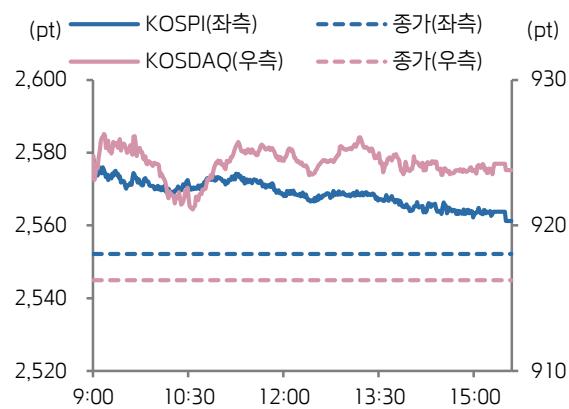
금일에도 ADP 민간 고용 둔화로 인한 연준의 추가인상 기대 약화, 10 년물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현재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그 아래 카테고리에 있는 주도 테마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끼리 수시로 베팅을 바꾸고있는 모습. 이를 감안 시 금일에는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포함 중국 관련 뉴스플로우로 인한 국내 중국 소비 테마주(면세, 화장품, 레저 등)들의 주가와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장중 및 동시호가 수급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것. 지난 8 월 11 일 MSCI 의 반기리뷰 결과가 반영이 되는 리밸런싱이 종가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 당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MSIC 한국지수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등 4 개의 종목이 신규로 편입되고, CJ, 이마트 등 2 개의 종목이 편출되기로 결정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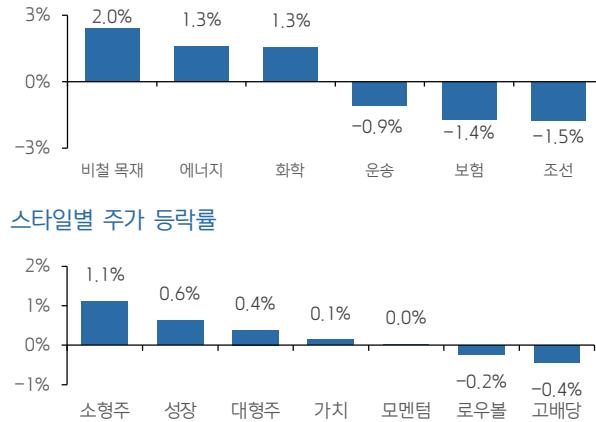
이번 편출입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ETF, 인덱스펀드 포함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펀드들의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장 마감전 동시호가에 이루어질 예정. 이들의 기계적인 수급 이외에도 “편입 이벤트 소멸 vs 신규 자금 유입 기대감”이 충돌하면서, 해당 종목들의 수급 변동성이 장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그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전반에 걸쳐 외국인 수급이 급변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단순 수급상의 이벤트일뿐 펀더멘털과 관련된 지수 혹은 개별 주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 베팅의 성격은 약하다고 판단. 장중에 특정 방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대규모 순매수 or 대규모 순매도)이 출현하더라도, 이에 동조하여 방향성 베팅을 하는 전략은 지양할 필요.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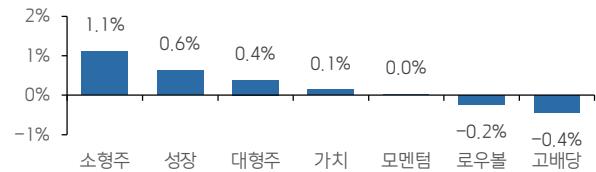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